

현장시선



장 태 범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협회장 취임 시에 삼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보편타당한 진리(적정공사비), 허위 없는 참된 진실(안전시공 및 윤리경영), 참되고 올바른 진심(회원사 감동 서비스)인데 이 중 적정공사비 확보를 제1순위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전반적인 물가상승 및 건설자재 가격상승으로 건설공사의 실제원가는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공사에 반영되는 공사원가는 현실경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원

도내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시급하다

도급자의 공사비 부담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자재·정비업체 등 2차 협력업체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유지·관리·보수 등 사후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예산 낭비 요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자재 및 인건비에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해 자칫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적정한 공사비 보장은 곧 시공품질과 안전사고 예방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발주부서·심사분석부서·우리협회가 합심하여 T/F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지내에서 추진되는 토목공사(상·하수도 등)에서 품의할증, 적정 장비·인력사용, 소운반 적용, 운반거리 정산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지난 13일 제주도교육청과 공립학교,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시설공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는 원가계산 시 도·시·군(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이뤄지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도에서는 상반기 중 건축공사 도·시·군

합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잘 확립돼 도내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건설현장 실현으로 도내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적정대가 반영으로 그동안 기피하던 하수관로 공사 등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계약을 쥐야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하고 건설산업 이미지도 함께 개선된다. 그리고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해 기업의 채산성을 회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시켜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인 것이다. 우리 업계에서도 청렴실천과 성실시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사설

제주도-의회, 갈등의 연속 실망스럽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계속 도의회와의 갈등의 빗미를 제공하면서 빗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활동 예산 부동의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외출처의 '의원 사업비' 발언이 또 다른 파장을 낳으면서 도의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원 지사의 발언은 지난 16일 제378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나왔습니다. 원 지사는 인사말 말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원씩 배분해왔던 예산을 2021년도 예산부터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박원철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마치 의원들 개개인의 잠짓돈 예산처럼 표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의회를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요즘 제주도와 도의회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되레 집행부가 도의회를 견제하고 발목잡는 형국입니다. 제2공항 특유 예산 부동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는 도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왜 도의회가 제2공항 특위를 꾸렸겠습니까.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결에 사실상 손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도의회가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돌려드리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 의원들의 불만섞인 고성이 나왔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폐회사를 생략하고

윤창호법 1년,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기세를 보였던 음주운전은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6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인식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은 송년모임 등 술자리 기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유혹에 노출될 빈도가 많은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이는 소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윤창호법 취지도 미래의 잠재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음주운전은 지속적인 단속과 초벌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아래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과 의식입니다. 아직도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고 용인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하여



오 희 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가칭)환경보전기여금이란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숙박객과 렌터카, 전세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자하는 제도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2000년 이후 급증해 2016년도에 관광객 1500백만 시대를 열게 됐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각종 폐기물이 쌓이고 교통난과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

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2013년에 제주 세계환경수도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 의해 환경기여금 도입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제주 자연가치보존 관광문화정책향상 워킹그룹에 의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러한 워킹그룹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환경오염 중 생활폐기물 배출,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관광객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서비스 총이용 요금의 5% 등으로 부담하게 된다. 성인 4인 가족이 2박 3일 제주 관광시 2만7000원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도민과 대국민에 대한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 제주도 사랑 안하시나봐요”

도의회 임시회서 설전

○...최근 중앙정부를 겨냥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제주도지사로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

19일 제주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행자위 정민구 의원은 강영진 공보관을 상대로 “중앙부처와 교류해야하는데 지사가 제주도를 위해 이 정도 배려도 못하나”라면서 “(도지사가) 제주도를 별로 사랑 안하시나봐요”라고 한다.

이에 강 공보관이 “지사께서도 정치적 입장을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자 정 의원은 “지사의 위치에서 제주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재반박.

이루미 시책개발팀 활동 성황

○...제주시청 이루미 시책개발팀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제안해 눈길.

이루미 시책개발팀은 지난 17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

린 시책 제안 2차 발표회의에서 인생 이모작을 위한 행복은퇴 플랜 교육 프로그램, 자원순환 공병수거 통합관리 시스템 등 16건을 제안.

시 관계자는 “공유·토론 과정을 거쳐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으로 추진 가능한 시책들은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수두 주의 보육시설 협조 당부

○...수두 유행 시기를 맞아 서귀포보건소가 내년 1월까지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수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와 보육시설의 협조를 당부.

수두는 2군 법정감염병으로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될 만큼 전염력이 매우 강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많이 발생.

부 고
박용수(KB국민카드 차장) 아버지
밀양박영호(前 교장선생님·향년 80세)께서 서거 2019년 12월 19일 07시 1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20일(금)
▶ 발인일시: 2019년 12월 21일(토) 오전 8시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3분향실
▶ 장 자: 해안동 선영
부 인 문영자
아 들 박용수(敎) 며느리 김선희
용수 강경이
창수 이선미
딸 박동희 사 위 김용준
* 연락처: 문영자 010-7212-1918
박용수 010-3275-7956
박창수 010-8804-052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우현공 광조(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20일
부 인 황춘보
아 들 현동훈 며느리 정지석
동환 이희숙
동희 홍정심
딸 현화(생) 사 위 오정남
미옥 고행섭
순기 이익철
순자 이의현
고태만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사는 2019년 12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 전원 의 서면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농업회사법인 아림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5-1
형산인 이희구

토지주(후손)를 찾습니다
성명: 강두현
주소(본적): 화북일동 4207
선촌리, 화천동 일원에 강두현씨의 사경토지(분묘)가 있으나 후손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1913년 8월 사경토지 등록
- 2014년, 2017년 후손들이 주소 등록 진행
- 췌 미등기토지
문의: 오세형 010-5531-5538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